

Sony-Sharp, LCD 패널 공동생산

2월26일 공동생산 원칙적 합의 ... Sony 신규공장 투자 1000억엔 이상

일본의 Sony와 Sharp가 액정 TV용 LCD 패널을 공동 생산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2월26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Sony는 Sharp가 Osaka 소재 Sakai에 건설하고 있는 패널공장의 총 투자액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0억엔 이상을 출자할 계획이다. Sony의 출자규모는 경영판단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율이다.

Sony는 2008년 가동을 개시하는 Sakai 공장으로부터 40인치형 TV 환산 500만대 정도의 패널을 공급받게 되고 9월까지 합작 계약을 정식 체결할 예정이다.

Sony는 삼성전자와 합병기업을 설립해 대형 TV용 패널을 주력인 액정 TV에 사용해왔으나 세계적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Sharp와의 공동생산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패널 조달을 기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Sharp는 Sony의 출자를 통해 총 투자액 3800억엔이 소요되는 신규공장 건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사는 액정TV를 각자의 브랜드로 판매해왔으나 공동생산을 계기로 TV 분야 사업에서의 협력관계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Sharp는 Sakai 공장에서 생산되는 패널을 자사의 액정TV에 사용하는 한편 Toshiba 등 다른 생산기업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판매해 LCD 패널의 공급원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울 계획이다.

일본의 LCD 패널 생산은 Matsushita도 Hitachi, Canon과 손잡고 Himeiji에 신규공장을 건설할 계획이어서 Sharp-Sony-Toshiba 진영과 크게 양대 진영으로 나누어져 양산 체제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연합 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2/27>